골 골 골…허정무호 '도쿄 대첩'

동아시아축구, 이동국-이승렬-김재성 '설 축포'

'숙적' 일본에 3-1 통쾌한 역전승 자신감 재충전

축구 태극전사들이 일본의 심장부에서 통쾌한 설날 축포를 세 방이나 쏘아 올렸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이 '영원한 맞수' 일본을 상대로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연출해 민족의 큰 명절 국민에게 기분 좋은 승전보를 전했다.

한국은 지난 14일 일본 도쿄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10 동아시아선수권대회 남자부 풀리그 최종 3차전에서 선제골을 내줬지만 이동국의 페널티킥 동점골과 이승렬의 극적인 역전골, 김재성의 쐐기골을 앞세워 '숙적'을 일본을 3-1로 대파했다.

2승1패(승점 6)가 된 한국은 홍콩을 2-0으로 완파한 중국(2승1무·승점 7)에 우승컵을 내주면서 2회 연속 우승에 실패해 준우승에 그쳤지만 막힌 가슴을 뚫어주는 시원한 승리로 대회를 마감했다.

허정무호는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4개월여 앞두고 본선 진출국인 일본에 승리하면서 자신감을 충전하고 3월3일 코트디부아르와 평가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반면 일본은 1승1무1패(승점 4)로 3위에 그쳤고 홍콩은 3전 전패로 대회를 마감했다.

한국은 전반 22분 페널티지역에서 수비수 다나카 툴리오를 집중적으로 마크하던 강민수가 뒤쪽에서 왼쪽 팔로 목을 감는 듯한 행동으로 경고를 받으면서 페널티킥을 허용했다. 키커로 나선 엔도 야스히토는 골키퍼 이운재를 속이고 가운데로 강하게 차 골망을 흔들었다.

반격에 나선 한국은 10분 후 이승렬의 절묘한 패스를 받은 김보경이 상대 페널티지역에서 수비수 벽을 돌파하다 우치다 아쓰토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천금 같은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키커로 나선 이동국은 침착하게 오른발 슈팅으로 왼쪽 골망을 꿰뚫어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지난 7일 홍콩과 1차전 때 4년 동안 이어졌던 A매치 무득점 행진을 마감했던 이동국의 A매치 24호골.

기세가 오른 한국은 강한 공세로 일본을 밀어붙였고 새내기 공격수 이승렬이 통렬한 중거리포로 역전골을 뽑아냈다. 이승렬은 전반 38분 아크 정면에서 일본 골키퍼가 전진한 것을 보고 왼발로 강하게 감아찼다. 빨랫줄 같은 궤적을 그린 공은 나카자와 유지의 등을 스치면서 굴절된 뒤 골키퍼 키를 살짝 넘겨 골네트를 출렁였다.

한국은 후반에도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거세게 몰아붙이던 한국은 후반 6분 주장 김정우가 오카자키 신지에게 거친 태클을 하는 바람에 두 번째 옐로카드를 받으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다. 한국은 일본과 나란히 10명이 싸워야 하는 동등한 상황이 됐다.

불안한 1점차 리드를 이어가던 한국의 해결사는 김재성이었다. 김재성은 후반 25분 왼쪽 측면을 돌파한 김보경과 2대 1 패스를 주고받고 나서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강한 오른발 슈팅을 날렸다. 대포알 같은 슈팅은 오른쪽 골대 모서리에 꽂혔다.

한국은 이후에도 공격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기분 좋은 2점차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10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 한국 대 일본의 경기에서 태극전사들이 공격수 이승렬의 역전골이 작렬하자 코칭스태프와 국민들을 향해 세배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정무 "아픈 예방주사 맞았다"

전술·정신력·선수기용 등 문제점 확인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에서 한국축구대표팀은 새로운 문제를 발견했다.

문제는 32년간 중국을 상대로 이어오던 무패행진이 막을 내린 졸전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소모적인 경기 운영과 허약한 정신력, 부적절한 선수 기용 등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허정무 감독은 월드컵 예선부터 순항하면서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확인했다는 데서 예방주사를 잘 맞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유럽파 빠지면 '종이 호랑이'=허정무 대표팀 감독은 국내파 선수들의 기량을 유럽파에 가깝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박지성, 박주영, 이청용, 이영표 등이 빠진 자리가 공수가 모두 삐걱거렸다. 허 감독은 동아시아선수권대회 대표팀에서 월드컵 베스트 11에 뛸 수 있는 선수가 3~4명 정도라고 밝혔다. 월드컵 본선에 출전할 나머지 선수는 유럽파의 백업이 될 전망이지만 기량이 현격히 달린다면 정예선수에 이상이 있을 때 불안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중국에게도 배운다=중국에 당한 참패만 떠올릴 것이 아니라 거꾸로 중국이 한국을 대파할 수 있었던 경기 운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중국은 과거 한국을 상대로 선제골을 터뜨리더라도 극단적인 수비에 치중하다가 결국 패배하는 때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제골을 넣은 뒤 잠그기에 치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공세를 퍼부어 한국을 흔들면서 두 골을 더 뽑았다. 강팀이 약체를 상대로 일격을 당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분석된다.

▲유기적 전체 수비 만들어야=중국전에서 보여준 수비의 실패는 단지 최종 수비라인의 부실만은 아니라는 게 대표팀 코치진의 판단이다. 최전방 공격수는 공격 때 순간적으로 쏟아부을 에너지를 비축하더라도 최소한 상대 공격을 시발점에서 막아야 하고 미드필더는 수비를 수비라인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선수기용의 '도박성' 배제=대표팀 코치진은 중국과 경기에서 경기감각이 떨어진 선수를 기용했다가 낭패를 봤다고 털어놓았다. 그간 대표팀에서 오래 호흡을 맞추지 않은 이근호와 곽태휘, 김두현 등이 검증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팀 플레이를 저해했던 것. 허정무 감독은 "우리 수비수가 잠비아와 평가전에서 넘어지는 실수를 한 장면과 같은 것"이라며 "기량과 경험이 있더라도 경기 감각이 돌아오지 않으면 전력누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아시아선수권대회는 월드컵 본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실험기회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본선에서는 실험 요소가 배제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연합뉴스

박태환 3관왕 '부활 가능성' 확인

호주수영 자유형 50m 5위…전훈 마감

6개월여 만에 치른 공식 경기에서 3관왕에 오른 박태환(21·단국대) 이 50m에서는 5위를 차지하고 한 달간의 호주 전지훈련을 마쳤다.

박태환은 지난 14일 오후(한국시간) 호주 시드니의 시드니올림픽파크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뉴사우스웨일스스테이트오픈 대회 마지막 날 남자 자유형 50m 결승에서 23초02에 레이스를 마쳐 5위를 기록했다. 1위 애슐리 캘러스(22초22)에는 0.8초 뒤졌다.

박태환이 자유형 50m를 뛴 것은 2008년 10월 전국체육대회 이후 1년4개월 만이다.

한국 최고 기록은 2002년 3월 코리아오픈대회에서 김민석(당시 한진중공업)이 세운 22초55로, 8년째 깨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2009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부진 이후 6개월여 만에 실전에 나선 박태환은 이번 대회 첫날인 12일 자유형 400m와 100m에서 잇달아 1위를 차지하며 건재를 과시한 데 이어 13일 자유형 200m에서도 우승해 3관왕을 차지했다.

지난 16일 출국해 호주 대표팀을 이끌었던 마이클 볼 코치의 지도로 호주 브리즈번에서 전지훈련을 했던 박태환은 약 한 달간의 담금질을 마치고 1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연합뉴스

최경주 "톱10 다음에"

PGA 페블비치 프로암 21위

'탱크' 최경주(40)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첫 톱10 진입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경주는 1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페블비치 골프링크스(파72.6천816야드)에서 열린 AT&T 페블비치 내셔널프로암 마지막 라운드에서 버디는 1개도 잡지 못하고 보기 3개를 적어내 3오버파 75타를 치는데 그쳤다.

합계 8언더파 278타를 스코어카드에 써낸 최경주는 전날 공동 10위에서 공동 21위로 떨어져 톱10 진입을 다음 대회로 미뤘다.

지난해 우승자 더스틴 존슨(미국)은 18번홀(파5)에서 절묘한 벙커샷에 이어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16언더파 270타로 전 세계랭킹 1위 데이비드 듀발(미국)과 J.B 홈스(미국·이상 15언더파 271타)를 1타차로 제치고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최경주는 페어웨이 안착률을 86%까지 높이며 승부수를 띄웠지만 몇차례 나온 실수에 발목이 잡혔다. /연합뉴스

한국 남 핸드볼 4강행

亞선수권 바레인에 39-26 승

한국남자핸드볼대표팀이 제14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4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한국은 지난 14일(한국시간) 밤 레바논 베이루트의 알사다카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2차 리그 두번째 경기에서 바레인을 39-26으로 여유있게 물리쳤다.

연승 행진을 이어간 한국은 15일 시리아 경기에 관계없이 4강에 진출, 대회 2연패를 향해 순항했다.

한국은 경기 초반 2-3으로 끌려갔지만 윤경신, 백원철(이상 3골)의 연속골로 전세를 뒤집어 전반을 19-11로 앞서갔다. 후반들어 이태영, 이재우가 스카이슛을 터뜨리는 등 한 수 위의 기량을 뽐낸 한국은 13골차 승리를 만들었다.

이태영이 7골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고 정의경, 정수영도 나란히 5골을 터뜨리는 등 12명중 11명이 골맛을 봤다. /연합뉴스

바르셀로나 22경기만에 첫 패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의 명문클럽 FC바르셀로나가 리그 22경기 만에 시즌 첫 패배를 안았다.

바르셀로나는 15일 오전(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비센테 칼데론 경기장에서 열린 2009-2010 프리메라리가 22라운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원정 경기에서 1-2로 졌다.

경기 시작 8분 만에 디에고 포를란에게 선제골을 내준 바르셀로나는 전반 22분 시망 사브로사에게 프리킥으로 결승골을 얻어맞고 무너졌다. /연합뉴스

대표:성 봉 규 (법원등록번호 16-07-29)
·전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전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제5대 총원우회장
·(주) 사단법인 광주아카데미 공동대표
·전 경실련 자정위원장
·전 서광주경찰서 자문위원장
·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장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
·전 355-B1지구 전남라이온스클럽 33대회장
·현 355-B1지구 지대위원장

해령법률경매 사원 모집중

T:062)430-7117 H.P:011-629-0827 김팀장 위치:법원정문앞

근린주택(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건/대(㎡)	감정가	최저가
동구	지산동	2871/827	12억7천	7억
서구	농성동	188/348	6억4천	4억5천
	임동	415/2244	16억7천	11억7천
북구	두암동	1470/2473	37억6천1백	12억3천2백
나주시	성북동	172/304	3억3천	1억1천
화순군	춘양면	101/76	1천8백8십	1천
장성군	북하면	1675/561	4억8천	2억8천
영광	법성	373/617	4억4천	2억4천

근린시설(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건/대(㎡)	감정가	최저가
북구	풍향동	536/1583	12억8천	7억1천7백
서구	금호동	320/1166	10억	7억3천
남구	송하동	457/1650	13억	4억7천
동구	대인동5가	264/826	7억	4억9천
나주시	중앙동	368/798	5억6천	3억9천
장성군	삼계면	411/1047	6억5천	3억6천
영광	홍농읍	660/1123	4억6천	2억7천
담양군	수북면	863/876	4억18백	1억5천
광양시	광양읍	162/465	4억4천	2억5천
목포시	산정동	170/814	5억8천4백	3억2천
영암군	영암읍	1035/292	1억6천	8천4백
무안군	무안읍	2360/3083	19억	7억

근린상가(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건/대(㎡)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쌍암동첨단	81/28	2억6천5백	1억4천8백
북구	용봉동	43/13	1억8천	1억3천
남구	봉선동	61/38	4억5천	2억
서구	매월동	192/202	2억7천	1억2천
	금호동	35/15	2억8천	1억9천
동구	학동편대	25/18	4천	2천2백
	충장로	6/3	1억	5천6백
목포시	용당동	68/22	8천5백	3천

주택(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건/대(㎡)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본덕동	908/144	1억	6천
	운남동	465/176	2억2천	1억5천
남구	월산동	139/128	1억	8천
	봉선동	117/258	1억3천6백	7천7백
서구	화정동	137/97	6천3백	5천6백
	농성동	132/78	6천6백	3천6백
북구	중흥동	254/164	1억9천	1억7백
나주시	부덕동	791/345	3천9백	2천7백
	산포면	252/91	4천7백	3천2백
	노안면	397/152	2천9백	2천
	금천남송	1305/140	5천4백	2천
함평군	월야용기	394/238	4천4백	신
장성군	삼서	668/146	4천4백	3천
담양군	봉산	486/74	4천7백	
	수북면	221/98	1천8백	신
영광군	영광읍	881/88	1천9백	신
	군서면	514/74	2천	1천4백
장성군	삼서우치리	668/146	4천4백	3천1백
화순군	동면	255/56	4천1백	2천2백
	도곡	653/77	1억6천	1억1천

토지(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지목	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광산구	광산구	임야	15554	1억1천	8천	보전관리
	쌍암동	대지	882	11억	8억3천	상업지역
	칠곡동	답	1461	1억8천	1억2천	생산녹지
	신룡동	답	1217	2천1백	신	자연녹지
북구	본촌동	주차장	1049	3억2천	2억2천	2종일반주거
	청풍동	답	3104	3천6백	2천	자연녹지
서구	농성동	대지	55	1억	7천2백	2종일반주거
	내방동	대지	157	7천6백	5천2백	2종주거
	치평동	대지	1980	10억	7억	2종주거
동구	용산동	임야	13602	2억6천	8천5백	보전녹지
나주시	문평	답	5866	5천9백	신	진흥구역
	봉황면	전	1673	3천1백	1천7백	생산관리
	노안면	전	2003	1억4천	6천3백	자연녹지
	동강면	답	1955	1천8백	1천1백	농림지역
	남평읍	전	398	9천	6천3백	도시지역
담양군	대덕면	임야	12198	2천	8백	보전산지
	창평면	답	2780	4천4백		농림
	금성면	잡종지	1041	1억9천	1억3천	계획관리
	월산면	임야	8559	5천7백	4천	준보전산지
	담양읍	답	4638	10억2천	5억7천	2종일반주거
화순군	화순읍	대	357	3억1천	2억1천	상업지역
	북면	임야	2631	6억6천	2억2천	계획관리
	한천면	답,전	9046	7천5백	5천2백	계획관리
	도곡면	임야	6744	2천	신	농림지역
영암군	덕진면	답	4336	3천6백		농림지역
	군서면	임야	3723	4천7백	3천3백	계획관리
	군서면	답	4969	3천6백		농림
	삼호읍	임야	1511	3천7백		자연녹지
	신북면	답	2160	1천8백	1천3백	농림
장성군	남면	답	2466	3천4백	신	개발제한구역
	삼계면	대지	564	3억1천	2억1천	상업지역
	동화면	대지	3368	1억4천	8천3백	관리지역
	삼계면	답(저수)	1604	2천6백	1천6백	농림
함평군	월야면	답	4025	3천6백	신	농림
	신광면	답	3053	2천6백	1천6백	농림지역
	손불면	임야	13408	1천3백	8백4십	농림
	손불면	전	5292	9천6백	6천	수자원보호
무안군	삼향면	임야	44849	4억	신건	농림지역
	청계면	목장용지	18506	5억7천	3억8천8백	보전관리구역
	일로읍	임야	3969	1억1천	8천3백	농림지역
	현경면	답	2142	4천7백	3천2백	자연환경
곡성군	입면	답	2848	3천7백	2천6백	농림
	겸면	답	1289	8천		계획관리
	목사동면	임야	12506	4천5백	3천	보전관리
	삼기면	답	2412	2천4백	1천6백	농림지역
	석곡리	공장부지	2023/373	1억8천4백	1억3천	계획관리
	입면	답	2300	2천4백	1천6백	농림

농가시설

지역	소재지	지목	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장흥군	용산면	축장	3726	8억	6천8백	계획관리
나주군	동강면	답	2808	3천3백	2천3백	농림지역
함평군	해보면	축사	2586	1억6천	1억1천	계획관리
영광군	홍농읍	축사	6284/2810	5억6천	2억	생산관리
영암군	금정면	축사	8685	9천1백	6천4백	보전관리

숙박,공장,원룸,선박

지역	소재지	토/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광주	북구	384/1026	5억5천	2억5천	숙박시설
	신안동	186/544	3억5천	2억4천	숙박시설
	서구	157/465	3억4천	1억5천	숙박시설
무안군	무안읍	11741/1327	11억6천4백	3억2천	관리지역
구례군		2029/1480	7억1천	5억	
순천시	연향동	563/1690	24억	13억	
여수시	봉산동	357/1042	8억6천	3억6천	상업지역
화순군	도곡면	2042/2796	19억4천5백	8억7천1백	
광산구	소촌동	374/843	4억6천	2억7천	
북구	두암동	212/306	2억2천9백	1억6천	
남구	서동	360/844	5억	3억5천	원룸
서구	농성동	281/514	5억4천		원룸
	금호동	187/410	2억7천8백		
	유촌동	184/358	3억	2억1천	
	쌍촌동	227/375	2억7천	1억9천	
동구	풍향동	179/477	3억4천	1억5천	2종일반지역
	지산동	125/221	1억8천		
	지산동	111/167	2억7천		아인리츠
광산구	오산동	1852/1829	9억	6억3천	공장
	하남동	3291/2778	17억	12억	
	월동	4297/5113	19억	8억9천	
영광	만곡리	4031/1937	6억5천	4억5천	
영암신북	갈곡리	5265/1205	3억5천	1억4천	
무안	청계 청수리	4858/2759	19억	13억	
화순	동복(펜션)	5494/1630	1억7천	1억2천	답
무안	청계(목장)	1119/340	3천7백		

아파트

지역	소재지	토/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남구	무등파크2차	84/32	8천7백	6천2백	
	고운하이플러스	84/57	1억9천	1억3천3백	
서구	라인동산	59/31	9천3백	6천5백	
	광명하이츠	139/52	1억3천5백	9천4백	
동구	신양투쉐플러스	219/166	5억3천	2억4천	
	무등파크	139/	1억8천5백		
나주	대방노블랜드	59/33	8천2백	6천4백	
	삼성아파트	59/28	5천2백	3천6백	
화순군	대흥아파트	48/17	4천	2천8백	

선박 가능합니다